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 (윤리와 사상)

성명		수험번호				3			제 [] 선택
----	--	------	--	--	--	---	--	--	----------

윤리와 사상

1.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○○께

물을 손으로 쳐서 튀게 하면 이마에까지 닿게 할 수 있습니다. 물이 튀어 올라 이마에 닿는 것은 물의 본성 [性]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인간은 불선(不善)을 행할 수 있지만,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.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고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습니다. ... (후략).

성선설

- ① 예(禮)를 배우고 몸에 익혀 악한 본성을 교정해 나간다.
 - ② ~~회개~~에 이르기 위해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베푼다.
 - ③ 의로운 일을 반복하여 [集義] 올곧은 도덕적 기개를 기른다.
 - ④ 문명의 편리를 거부하고 어떠한 인위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.
 - ⑤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고 [坐忘] 정신적 자유를 누린다.
- ③: 집의 + 초연지기

2. 고대 서양 사상이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갑: 덕은 곧 지식이다. 사람은 자발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으며,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다. 어떤 것도 덕 있는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.

을: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누어진다.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 때문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다.

- ① 갑: 덕을 갖추려면 덕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.
- ② 갑: 선을 알면서도 악을 고의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
- ③ 을: 선에 대한 무지는 악행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.
- ④ 을: 품성적 덕은 지성적 덕 없어도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다.
- ⑤ 갑, 을: 덕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.

3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피로움[苦]을 모르고, 피로움의 원인[集]을 모르며, 피로움의 소멸[滅]을 모르고, 피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[道]을 모르면, 이것을 무명(無明)이라 한다. 피로움을 알고, 피로움의 원인을 알며, 피로움의 소멸을 알고, 피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면, 이것을 바른 견해[正見]라 한다.

- ① 윤회하는 과정에는 '나'라는 고정된 실체가 존재한다.
- ② 만물은 원인과 조건[因緣]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.
- ③ 중생은 생각이 아니라 몸과 입으로만 업(業)을 짓는다.
- ④ 피로움의 원인을 몰라도 번뇌와 애욕은 소멸될 수 있다.
- ⑤ 팔정도의 최종 목표는 바른 생활[正命]에 이르는 것이다.

4. (가)의 사회사상이 갑, 을의 입장에서 볼 때, (나)의 ㉠에 들어갈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아리스토텔레스 (가)	갑: 공산 사회에서는 분업화된 노동에 대한 인간의 예속이 사라진다. 그리고 노동은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적 욕구가 된다. 을: 유토피아에서는 사유 재산이 없기에 돈에 대한 탐욕이 사라진다. 노동은 하루 6시간으로 제한되고 여가 시간은 정신적 오락이나 연구에 쓰인다.
(나)	기 자: 이상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? 사상가: ㉠

- ① 갑: 국가가 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.
- ② 갑: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.
- ③ 을: 구성원들의 노동과 여가 활동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.
- ④ 을: 사치와 낭비가 없고 정신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입니다.
- * ⑤ 갑, 을: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입니다.

아리스토텔레스: 국가 해체 = 무정부 사회

5. (가)의 근대 서양 사상이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 ~ 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인간 행위의 유일한 목적은 행복이기에 행복의 증진 여부가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. 행복은 쾌락을, 그리고 고통의 부재를 뜻하며, 양과 질 모두의 측면에서 추구된다.

을: 인간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강력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.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가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에서 비롯될 때 그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.

(나)

<범례>

A: 갑만의 입장
B: 갑, 을의 공통 입장
C: 을만의 입장

- ① A: 질적으로 높은 쾌락일수록 쾌락의 양은 항상 증가한다.
- ② A: 행위의 도덕성 판단은 동기와 결과 모두에 근거해야 한다.
- ③ B: 행위자의 행복을 낳지 않는 도덕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.
- C ④ B: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도덕 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.
- ⑤ C: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자율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.

3 / 36

①: 쾌락의 양과 같은 별거

③: 칸트(의무의식) / 질 = (행복 - 행위자) 수직선상 => 도덕적 행위

6.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갑: 배우면 날로 지식이 늘어나지만, **도(道)**를 닦으면 날로 지식이 줄어든다. **성인(聖人)**은 정치를 함에 있어 언제나 백성으로 하여금 아는 것도 없고 **욕심도 없게 만든다.**

을: 널리 배우고 **예(禮)**로써 단속한다면 도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. **예가 아니거든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.**

- ① 갑: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갖추려면 ~~예~~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.
- ② 갑: **도를 체득한 자는 작위가 없어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.**
- ③ 을: 법령과 형벌만을 근본으로 삼아서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.
- ④ 을: 어진 사람은 ~~서버를~~ **분별하지 않고**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.
- ⑤ ~~갑, 을~~: **상실한 도를 회복하지 않고는 인의를 구할 수 없다.**

7.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개인의 영혼 안에도 **국가**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것이 있으며, 그 수도 똑같다. 또한 개인이 정의롭게 되는 것도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이다.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것은 국가 안에 있는 **세 계층**, 즉 통치자, 방위자, 생산자가 저마다 제 할 일을 함에 의해서이다.

< 보기 >

- ㄱ.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~~어떤~~ **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.**
- ㉠ **절제의 덕을**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갖추고 화합해야 한다.
- ㉡ **정의의 덕을** 갖춘 사람은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룬다.
- ㄴ. ~~저해의 덕을~~ **통치자 계층에게만 사유 재산이 허용된다.**

- ① ㄱ, ㄴ ② ㄱ, ㉡ ③ ㉠, ㉡ ④ ㄴ, ㉡ ⑤ ㉡, ㄴ

8. 갑,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폭력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모독하는 것이다. 폭력에는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가해자가 있는 직접적 폭력, 사회 구조 자체에서 일어나는 **구조적 폭력**, 그리고 이 두 폭력을 정당화하는 **문화적 폭력**이 있다.

을: 전쟁은 천하에 커다란 해를 끼친다.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**[兼愛]** 한다면 나라와 나라는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.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**[非攻]** 나라와 백성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.

- ① 갑: 문화적 폭력이 있으면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.
- ② 갑: 구조적 폭력은 가해자의 의도가 ~~진개되어야~~ 성립한다.
- ③ 을: 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침략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.
- ④ 을: ~~존비천으로~~ **분별하는 사랑**으로 다른 나라를 대해야 한다.
- ⑤ ~~갑, 을~~: **평화 실현을 위한 폭력적인 수단은 허용되어야 한다.**

㉡: 의도가 없어도 폭력 가능

9.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이성만 도덕적 선악을 구별할 수 없으며, 이성 혼자서는 어떠한 행동이나 감정도 억제하거나 산출할 수 없다. **이성은 감정의 노예**이고 또한 노예이어야만 한다.

을: 이성의 최고선은 **신, 즉 자연**을 인식하는 것이다. 이성이 명석판명하게 인식할 수 없는 감정은 없으며, 이성은 감정을 인식함으로써 감정을 억제할 수 있다.

< 보기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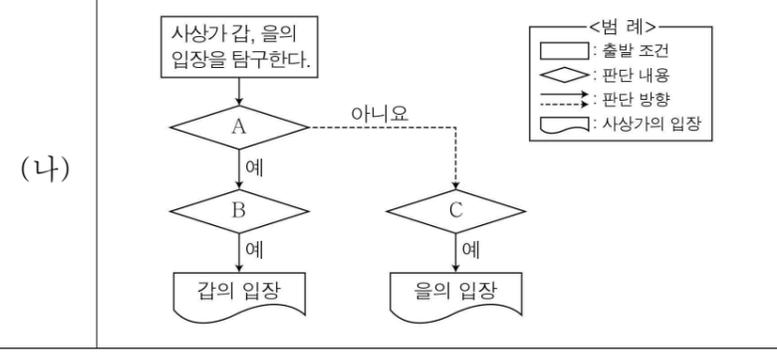
- ㉠ 갑은 감정에 의한 선악의 구별은 **보편적일 수 있다고 본다.**
- ㉡ 을은 모든 감정이 필연적 인과 질서에 따라 생긴다고 본다.
- ㉢ 을은 갑과 달리 ~~어떠한~~ **감정도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없다고 본다.** *소문: 자기 보편이 뭐*
- ㉣ 갑, 을은 자기 보존의 욕망은 **이성과 대립한다고 본다.**

- ① ㄱ, ㄴ ② ㄱ, ㉡ ③ ㉡, ㉣
- ④ ㄱ, ㄴ, ㉡ ⑤ ㄴ, ㉡, ㉣

10. (가)의 갑,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 ~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 갑: 국가의 목적은 인간의 안전 보장이다. 자유를 사랑하는 인간이 국가에서 살기로 한 이유는 **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** 상태를 벗어나기 위함이다.

을: 국가는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며 최고선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한다.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는 **최고 단계에 도달한 공동체**이다.



< 보기 >

- ㉠ A: 국가는 인간들 간의 **계약**으로 형성된 권력 기구인가?
- ㉡ B: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권은 ~~분할~~되어야 하는가?
- ㉢ B: 국가가 없다면 누구나 **전쟁 상태**에 놓이게 되는가?
- ㉣ C: 국가는 **인간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공동체**인가?

- ① ㄱ, ㄴ ② ㉠, ㉡ ③ ㉡, ㉣
- ④ ㄱ, ㄴ, ㉡ ⑤ ㉠, ㉡, ㉣

11. 고대 서양 사상이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행복의 시작이자 끝은 쾌락이다. 쾌락은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, 모든 선택과 기피의 근거를 찾고 헛된 믿음을 없애며 냉철하게 사고하는 데 있다.

을: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야 한다.

- ① 갑: 어떤 쾌락을 선택할지는 이성적 숙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- ② 갑: 쾌락은 그 자체로 선이며 모든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.
- ③ 을: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면의 의지로 변화시켜야 한다.
- ④ 을: 이성을 따르면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다.
- ⑤ 갑, 을: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한 공적 활동에 헌신해야 한다.

①: 이따쿠르니 => 쾌락+이성
 ②: 쾌락주의
 ④: 윤리학

12. 다음을 주장한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? 이기론 => 주희

하늘[天]이 음양과 오행으로 만물을 낳을 때는 기운[氣]으로써 형체를 이루고 이치[理] 역시 거기에 부여한다. 사람과 사물이 생겨날 때에는 각각 그 이치를 얻어서 다섯 덕목[五常之德]으로 삼으니, 이른바 본성[性]이라고 말하는 것이다.

- ㉠ 사람에게서 인의예지의 덕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가?
- ㉡ 하늘의 이치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을 인정이라 하는가?
- ㉢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하늘의 이치에 도달할 수 있는가?
- ㉣ 이와 기는 사물에서는 분리되지 않지만 개념상 구분되는가?
- ㉤ 본연지성은 타고난 기질의 영향을 받아 악하게 될 수 있는가?

③: 덕목지

13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갑: 노예는 간섭이 아니라 지배에 의해 본질적 특징이 드러나므로 자유를 노예 상태와 대조하는 것은 자유가 불간섭이 아니라 비지배에 있다고 보는 근거가 된다.

을: 불간섭의 영역이 넓을수록 내 자유의 영역도 넓어진다. 나의 바람이 좌절되는 과정에 타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가 억압의 기준이 된다.

- ① 갑: 간섭 없이 지배할 수 있고 지배 없이 간섭할 수 있다.
- ② 갑: 차별적 지배가 있다면 시민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.
- ③ 을: 국가는 개인에게 사회에 대한 헌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.
- ④ 을: 진정한 자유는 외부 간섭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자유이다.
- ⑤ 갑, 을: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의 필수 조건이다.

①: 지배 & 간섭 = 0

14. 한국 불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모든 법은 일심(一心)일 따름이고, 모든 중생은 깨달음의 본체일 뿐이다. 진여와 생멸은 둘이 아니기에 일심이 되고 하나를 고수하지 않기에 이문(二門)이라 한다.

깨달음[悟] 이전의 수행은 참된 수행이라 할 수 없다. 중생은 깨달음 이후에 정(定)과 혜(慧) 두 가지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번뇌를 끊고 자성(自性)을 떠나지 않는다.



- < 보기 >
- ㉠ 갑: 부처와 중생은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.
 - ㉡ 을: 자성이 부처임을 깨치면 습기(習氣)는 단번에 제거된다.
 - ㉢ 을: 정은 마음의 본체[體]이고 혜는 마음의 작용[用]이다.
 - ㉣ 갑, 을: 깨달음의 추구하고 중생 구제를 함께 해야 한다.

- ① ㉠, ㉡
- ② ㉠, ㉢
- ③ ㉡, ㉣
- ④ ㉠, ㉢, ㉣
- ⑤ ㉡, ㉣

㉡: 잠정적 습기 제거
 ㉢: 본체 = 선정 / 자리 = 작용

15. (가)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,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

갑: 도(道)란 큰길과 같다. 어찌 알아보기 어렵겠는가? 대장부는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도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도를 행한다. 인(仁)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(義)는 사람의 길이다.

을: 도는 고금(古今)의 올바른 판단 기준이다. 이 도는 하늘의 도가 아니요 땅의 도도 아닌 인간의 도이다. 인간의 본성[性]은 악하나 도를 받들어 선을 쌓으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.

병: 도는 실재하고 진실하지만 하는 일도 없고 형체도 없다[無爲無形]. 도는 스스로가 근본이 되고 하늘과 땅을 생성하였으며 개미, 쪽정어, 기왓장 등 어디에나 있지 않은 곳이 없다.

(나)

<범례>
 →: 비판의 방향
 A~F: 비판의 내용

<예시>
 甲 → A → 乙
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.

- ① A: 인위를 더하지 않으면 본성은 선해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. 맹자: 성선설
- ② B: 도덕적 실천 능력을 누구나 지닌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. 유자: 지남
- ③ C, E: 시비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인 것임을 간과한다.
- ④ D, F: 도덕과 통치의 원리는 하늘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.
- ⑤ E: 인의의 규범은 인간의 본성을 해치는 것임을 간과한다.

16.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아퀴나스

이성은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 맞는 것을 선으로 파악하고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. 또한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 반대되는 것을 악으로 파악하고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. 이성이 파악한 선과 악은 자연법의 명령과 관련되는데, 자연법의 첫 번째 명령은 '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.'이다.

< 보기 >

- ㉠ 자연법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을 명령한다.
- ㉡ 자연법은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명령한다.
- ㉢ 인간에게는 동물과의 공통된 본성에 따른 선도 존재한다.
- ㉣ 인간은 자연 자체인 신과 하나가 될 때 행복을 누리게 된다.

- ① ㉠, ㉡ ② ㉡, ㉢ ③ ㉢, ㉣
- ④ ㉠, ㉡, ㉢ ⑤ ㉠, ㉢, ㉣

㉣. 자연 법칙 관련 / ㉡. 인격신 ≠ 범신론

[17~18] 갑, 을은 한국 사상가들이다. 물음에 답하시오.

양

갑: 군자의 학문은 마음이 아직 발하지 않을 때 경(敬)을 위주로 존양(存養)하고, 이미 발했을 때에도 경을 위주로 성찰한다. 마음은 이(理)와 기(氣)가 합해져 있는 것이며 감정[情]에는 이와 기 두 갈래의 연원이 있다.

이

을: 군주의 학문은 기질의 변화[橋氣質]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. 기질을 변화시키려면 병을 살피 약을 쓰듯 해야 한다. 경은 공부하는 요령이고 성(誠)은 공부한 뒤의 경지이다. 성이 아니면 기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.

17.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~~않~~ 것은?

- ㉠ 갑은 이에 따라 행위하도록 하는 것을 경의 목적으로 본다.
 - ㉡ 을은 기질을 바로잡아야 본연의 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.
 - ㉢ 갑은 을과 달리 기뿐만 아니라 이도 발할 수 있다고 본다.
 - ㉣ 을은 갑과 달리 기를 제어해야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고 본다.
 - ㉤ 갑, 을은 이는 기와 결합해야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.
- ㉢: 양 (이기론) / ㉣: 양 이 악 기 제어 필요**

18.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정약보

사단(四端)은 인의예지의 근본이 되는 까닭에 성인이 사람을 가르침에 여기서부터 기초를 닦아 확충하게 했다. 만약 사단의 이면에 인의예지가 잠복해 있어 주인이 된다면 이는 확충 공부가 그 근본을 버리고 그 끝을 잡는 격이다.

- ① 덕(德)은 자주지권을 발휘해야 회복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.
- ② 성(性)은 선의 확충으로 획득한 기호(嗜好)임을 모르고 있다.
- ③ 경(敬)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수양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.
- ④ 천(天)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단의 근원임을 모르고 있다.
- ⑤ 이(理)는 본성으로서의 이법적 실체가 아님을 모르고 있다.

- ① 덕 ≠ 성성
- ② 성(性) ⇒ 본래 선천적 기질 발현
- ③ 경 ⇒ 노력 필요
- ④ 양이 오일 있지 않음

19.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인간은 자유로우며, 인간은 바로 그 자유입니다. 신이 없기에,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주어진 가치나 질서를 찾지 못하고 어떤 평계도 댈 수 없는 상태에서 홀로 있습니다. 인간은 고정된 인간성에 의해 결코 설명될 수 없습니다. 세계 속에 던져진 이상,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.



< 보기 >

- ㉠ 인간은 자신의 본질인 보편적 이성을 실현해야 한다.
- ㉡ 인간은 자유와 책임을 의식할 때 불안을 느끼게 된다.
- ㉢ 인간은 자신의 도덕을 선택하며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.
- ㉣ 인간은 절대자의 계획에 의해서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졌다.

- ① ㉠, ㉡ ② ㉠, ㉢ ③ ㉡, ㉣ ④ ㉡, ㉣ ⑤ ㉢, ㉣

*** 자유롭고 선택한 것은 ㉡ but not 장자다!**

20.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. 학생 답안의 ㉠~㉤ 중 옳지 않은 것은?

서술형 평가

㉠ 문제: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.

갑: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완전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기능이 확장되어야 한다. 이러한 확장은 개인의 경제적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다.
 을: 자유에 대한 사회주의의 약속은 노예로 가는 길이다.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시장의 자생적 질서가 사회 구성원에게 다른 어떤 경쟁 체제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준다.

㉡ 학생 답안

갑,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, 갑은 ㉠ 시장의 결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며, ㉡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 완전 고용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 이에 비해 을은 ㉢ 정부가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며, ㉣ 경쟁력 차원의 평등한 분배를 위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 한편 갑, 을은 모두 ㉤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둔 개인의 이윤 추구가 정당하다고 본다.

- 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㉣ ⑤ ㉤

*** 평등한 분배는 어떠한 자본의 성으로 된 지**

* 확인 사항

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